

프랑스의书评은 공정한가

막강한 위력의 저널리즘 서평... '비판의 소리' 높아

저널리즘은 책에 대해 공정한가? 표현을 달리하면 저널리즘은 서평 내지 신간안내에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요즘 프랑스에서 새삼스럽게 문제화되고 있다. 서평저널리스트들이 책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관심'하며 '엘리트지향', 아니면 '피상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프랑스 독자와 출판사들 사이에 높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비판을 받는 내용은 "어디든 모두 우로 나란히 식이니 똑같은 책만 집어들게 된다"는 야유. 화제에 오르는 책이나 유명작가의 책에만 관심이 집중된다는 지적인데, 바로 그 화제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프랑스인들은 흔히 '눈덩이현상'이라고 말한다. 즉 TV프로 「아포스트로프」(인기 사회자 베르나르 포비가 진행하는 작가 인터뷰 프로)로부터 일간지로, 계속해서 주간 뉴스매거진으로 화제가 불어나게 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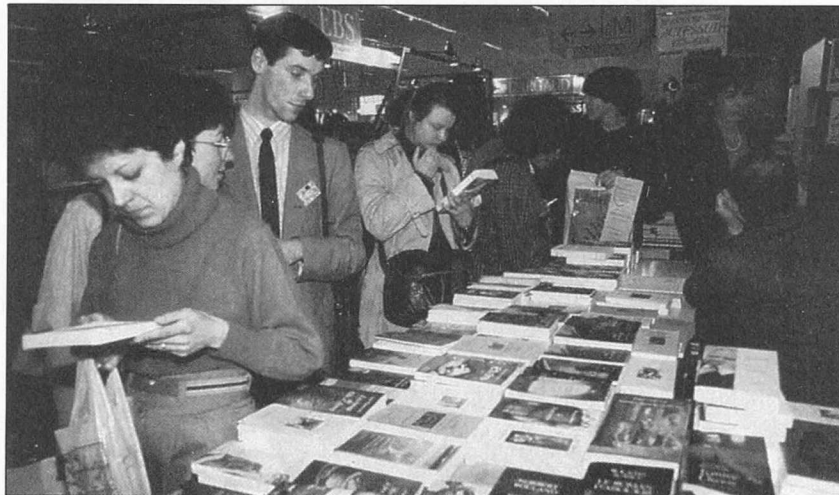
그만큼 TV매체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얘기다. TV에서의 책광고가 금지된 프랑스에서는 자연히 신간안내와 저자 인터뷰 프로그램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력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활자저널리즘에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저자에 대한 이른바 '평가절하'(médiatisation) 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즉 책의 내용이나 평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저자의 생활 등 책과는 직접 상관없는 주변사에 대한 프로포르타주적 접근으로 인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

“너무 늦거나 장르가 편중됐다”

최근 '책의 구매동기'에 대한 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프랑스인들의 활자매체 서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82%는 '친구의 권유'나 '소문을 듣고' 책을 산다고 했고, 그 다음 75%가 '주간지나 서평을 읽고', 67%가 '아포스트로프를 보고' 책을 구입한다고 답변했다.(복수 답변이 허용됐으므로 합계는 100%가 넘는 다.)

반면 비평가의 서평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50%에 이르고, 40% 정도는 서평에 대해 '독자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서평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출판사측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소위 '딱딱한 이론서' 일 경우, 서평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 탓인지 몰라도, 책이 나오지



서평 저널리스트들이 책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관심하며 너무 피상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프랑스독자들 사이에 높다. 책이 서점 진열대에서 사라진 뒤에서야 서평이 나온다는가, 시집이나 아동도서, SF 등은 너무 드물게 다뤄 장르가 편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서평이 실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불평이다. 그때는 이미 문제의 책은 서점의 진열대에서 모습을 감춘 뒤라는 얘기.

또한 장르가 너무 편중됐다는 지적도 따른다. 최근 갑자기 정치나 국제정세, 다큐멘터리 등 시류에 발맞춘 넉넉선이 많이 다뤄지면서 문예물 서평은 줄어든 반면 번역물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물시즈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출판량이 증가하는 미술서적이나 아동도서, 시집과 철학책, 그리고 SF 등은 서평으로 다루지는 경우가 너무 드물다는 것.

사실 프랑스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의 양은 엄청나게 늘었다. 20년전만 해도 1년에 나오는 신간이 7,500종에 불과했는데, 1988년에는 1만3천종으로 두배 가량이 늘었다(물론 재판, 중판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다). 이것은 한달에 1100종, 일주일에 275종씩 신간이 쏟아진다는 계산이 된다. 「르몽드」紙의 F. 붓드는 하루에도 약40종씩 쏟아져나오는 책에 대해 “가급적 공정해지려 하지만, 6~12페이지의 한정된 지면에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는 건 무리”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유명작가에

차원이 아니라 책의 질의 차원이 아니겠냐는 일축. 심지어 「르 프앵」誌의 J.C. 아메트는 “스케일과 역량을 갖춘 프랑스작가가 거의 없다”고 혹독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예서평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많은 서평저널리스트들도 인정하는 바다. 예전의 모리악이나 카뮈, 사르트르처럼 그 자체로 훌륭한 평론이 되는 서평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누벨 옵세르바토르」誌의 J.L. 에딘은 '전환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일찍이 거장들의 세대가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지금은 다음 세대의 흥룡을 기대할 때”이므로 비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 그러나 거장들의 고전시대가 다시는 도래하지 않으리라는 비판론도 아직까지 프랑스독자들에게 만만치 않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작 外誌에서)

편중한다는 비판에 대해 “독자가 그런 정보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번역물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소출판사에서 번역작품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문제는 단순한 인기나 유행의

일본 민예운동가 柳宗悦 서간집

4300통이 넘는 편지·엽서... 反戰 호소하는 영문편지도

일본 민예운동의 창시자로 조선미술에 강한 애착을 보여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柳宗悦(아나기 무네테오시·1889~1961)의 서간집이 최근 일본에서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서간집은 「柳宗悦全集」(전22권, 筑摩書房)의 제21권으로 예정보다 7년 늦게 탄생했는데, 편지·엽서들이 4300통이 넘어 상·중·하 3권으로 나눠 수록했다.

柳宗悦은 종교철학을 연구, 일찍부터 白樺派 운동에 참가했는데, 후에 미술사와 민예연구에 몰두하면서 독자적인 민중미술을 탐구, 근대문화를 구명했으며, 1936년에는 도쿄 고마바(駒場)에 일본民藝館을 설립하는 등 민예운동의 황무지를 개척한 인물.

「柳宗悦전집」은 1955년부터 간행을 시작, 제20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1권의 서간집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국 각지에 있는 100여명 이상의 소장자들을 수배해서 일일이 방문, 편지를 복사해 낱썬으로 정리하는 번잡한 작업으로 출판일정은 대폭 지연됐다. 그러기를 7년, 우선 상권이 금년 7월에 간신히

선보였고, 중권은 9월, 그리고 하권은 11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수록된 편지들은 모두 4303통인데, 83통의 영문편지도 들어 있다. 15세부터 72세로 죽기 나흘전까지 장장 58년에 걸친 이 편지들은 모두 공개되지 않은 秘藏의 것들.

그 방대한은 근대지식인들의 서간집 가운데서도 압도적이어서, 1926년 1월16일자에는 이것이 그날 쓴 15,6번째 편지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柳가 영국인 버나드 리치에게 보낸 영문편지는 주목할 만하다. 편지에서 그는 反戰, 反군국주의를 세차게 주장했는데, 그처럼 자신의 입장을 토로한 편지는 없을 정도. 당시 상황에서 일본어로는 전쟁을 그토록 철저히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후에 부인이 될 中島兼子에 보낸 149통의 러브레터 또한 서간문들 중 빠뜨릴 수 없는 것. 만남이 깊어지면서 두사람의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이나 갈등과 변명의 면면을 읽을 수 있다.